



PGA투어 수퍼루키 임성재 ‘최후의 30인’ 비장한 각오

플레이오프(PO) 2차전 BMW 챔피언십 15일 개막
“신중하게 칠 것… 투어 챔피언십 꼭 나가고 싶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시즌 플레이오프(PO)를 경험하고 있는 루키 임성재(21)가 ‘최후의 30인’까지 살아남겠다고 다짐했다.

임성재는 PO 2차전 BMW 챔피언십 개막 하루 전인 14일 PGA 투어를 통해 “지난주 처음으로 PO 대회를 경험했다. 1차전 노던 트러스트의 공동 38위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주에 좀 더 잘해서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시즌 7차레 톱10에 들며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페덱스컵 랭킹 26위에 오른 임성재는 1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일리노이주 머디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BMW 챔피언십에서 ‘페덱스컵 30위 이내 사수’를 노린다.

1500만달러(약 182억7000만원)라는 보너스가 걸린 PO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은

시즌 내내 꾸준한 성적을 이어온 선수 30명만 초대받을 수 있는 무대다.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인왕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굳히기 위해서라도 임성재 로선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대회다.

그는 첫 PO에 대해 “즐거기도 하고 긴장도 된다”면서 “이번 주는 행복하게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다. 이번 대회에서 25위 안에 들어 투어 챔피언십에 꼭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페덱스컵 랭킹 53위로, 쉽지 않은 ‘생존 경쟁’을 앞둔 김시우(24)도 목표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이다.

김시우는 “지난주 3~4라운드 드라이버에 문제를 느껴 이번 주엔 새 샤프트로 교체한 드라이버를 가지고 왔다”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이 목표다. 컨디션이 좋아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전설 매덕스·쿠팩스보다 한 수 위

LA타임스 “ERA+ 역대 2위”
올 시즌 경기 평균자책점 1.45

세계 최고의 투수를 넘어 역대 최고의 길을 걷고 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메이저리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이야기다.

로스앤젤레스 유력 지역지인 LA 타임스는 14일(한국시간) 류현진이

올 시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지 수치로 소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류현진은 1901년 이후 한 시즌 142이닝 이상 소화한 투수 중 역대 2위의 조정 평균자책점(ERA+) 기록을 세우고 있다.

ERA+는 리그 평균자책점과 구장 특성 등을 고려해 만든 투수 지표다. 100이 메이저리그 평균 성적이고, 높을수록 좋은 기록을 세운 게 된다.

LA타임스는 “류현진은 ERA+

284를 기록해 2000년 페드로 마르티네스(291)에 이어 역대 2위를 달리고 있다”며 “이는 1994년 그레그 매덕스(271·4위)를 넘어서는 기록”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이 앞지른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는 차고 넘친다.

다저스가 낳은 살아있는 전설, 샌디 쿠팍스(1966년 190)도 한참 밑에 있다.

현시대 최고의 투수로 꼽히는 클

레이턴 커쇼(다저스·2016년 237), 잭 그레인키(휴스턴 에스트로스·2015년 222)도 류현진이 제쳤다.

LA타임스는 “쿠팩스는 ERA+ 190을 기록하면서(류현진의 두 배 이상인) 300이닝이상을 던졌다”며 “쿠팩스가 류현진보다 떨어지는 투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이어 이 매체는 “우리가 올해 메이저리그의 역사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류현진을 치켜세웠다.

류현진은 올 시즌 22경기에 출전해 142%이닝을 던져 12승 2패 평균자책점 1.45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여자테니스 ‘윌리엄스 자매’
언니는 16강·동생은 기권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웨스턴 앤 서던 오픈(총상금 294만4486달러)에 출전한 ‘윌리엄스 자매’는 상반된 표정을 지었다.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랭킹 65위·미국)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대회 2회전에서 키키 베르텐스(5위·네덜란드)를 2-1(6-3 3-6 7-6 <7-4>)로 물리쳤다.

2시간 17분간 이어진 접전 끝에 지난해 우승자 베르텐스를 물리친 비너스는 4강에 올랐던 2012년 이후 7년 만에 이 대회 16강에 복귀했다.

16강에서는 빅토리아 아자렌카(40위·벨라루스)와 돈나 베키치(26위·크로아티아) 대결의 승자와

맞붙는다. 언니와 달리 동생 세리나 윌리엄스(8위·미국)는 웃지 못했다.

세리나는 대회 1회전 경기를 앞두고 허리 통증을 이유로 기권 의사를 밝혔다.

과거 이 대회에서 2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세리나는 “이전 대회가 끝난 후 이번 웨스턴 앤 서던 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을 다했지만,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11일 끝난 로저스컵(총상금 283만 달러)에서 결승에 올랐던 세리나는 신에 비앙카 안드레스쿠(14위·캐나다)와 1세트 경기 도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경기 시작 16분 만에 기권해 우승을 놓쳤다.

세리나의 대체 선수는 제시카 페굴라(56위·미국)로 정해졌다. 연합뉴스

사이클 유망주 양가은 전국 1위

양양국제·전국사이클대회
여고부 제외경기서 금메달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된 양가은(영주고 1·사진)이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양가은은 대한자전거연맹과 한국 실업사이클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해 13~16일 양양벨로드롬에서 진행 중인 ‘8.15 경축 2019 양양 국제사이클대회 및 전국사이클대회’ 여고부 제외경기에서 1위에 올랐다.

양가은은 제외경기 마지막 스프린트에서 이주은(경북체고 1)을 따돌리고 결승선에 먼저 안착했다. 제외 경기는 매 바퀴마다 결승선을 제일



늦게 통과하는 선수가 제외되는 종목이며, 마지막 두 선수가 남으면 마지막 스프린트로 경기가 진행된다.

앞서 양가은은 대한자전거연맹이 지난 6월 개최된 2019 KBS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를 포함해 상반기 개인성적 상위자 순에 따라 선발하는 2019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됐다. 지난 3월에는 제66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개인도로 79km와 52.4km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해 종합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음주 파문’ 빙상, 기강 해이 심각

대표 5명, 6개월 훈련 제외

서울 태릉선수촌 숙소에서 술을 마셨다가 적발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국가대표 선수 5명이 6개월간 대표팀 훈련에서 제외된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태운, 김철민, 김준호, 김진수, 노준수 빙속 대표 5명에게 국가대표 훈련 제외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체육회는 처벌 내용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14일 태릉선수촌에서 쏜겨난 5명은 내년 2월까지 선수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부분의 엘리트 종목 선수들은 태릉선수촌에서 진천선수촌으로 터전을 옮겼으나 빙속과 쇼트트랙 등 빙상 선수들은 태릉 국제빙상장이

있는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해왔다.

체육회는 또 대표 선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이인식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게도 1개월간 대표팀 제외를 징계했다.

아울러 음주 파문을 일으킨 대표 5명을 비롯해 남녀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전체에게 하루 8시간씩 3일간 24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징계도 부과했다.

빙속 대표 5명은 6월 27일 태릉선수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동성 성희롱 사건으로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이 진천선수촌에서 쏜겨난 지 불과 이틀 만에 드러난 빙속 선수들의 선수촌 내 음주 파문으로 빙상 대표 선수들의 기강 해이가 또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체육회의 결정은 빙상연맹의 솜방망이 처벌보단 중징계다. 연합뉴스



포르투 선수들 ‘망연자실’ FC포르투(포르투갈) 선수들이 1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포루투 드 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라스노다르(러시아)와의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3차 예선 2차전에서 2-3으로 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2003-2004 Uefa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인 포르투가 본선 무대에도 오르지 못한 것은 2010-2011 시즌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광복절 기획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중계방송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11:20 광복절 특집 우리 들꽃의 독립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슈퍼맨이 돌아왔다 10:40 지구촌 뉴스 11:10 자스타스 물아보기	6:00 MBC 뉴스투데이 6:25 MBC 뉴스투데이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공짜리 8:30 광복절 특집 앙코르 MBC스페셜 아베와 일본회의 9:30 930 MBC 뉴스 9:55 중계방송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11:25 판매중계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수상한 정보 9:10 광복절 특집 좋은아침 10:00 중계방송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11:20 광복절 특선영화 <암살>	7:30 브로로와 노래해요 8:00 당당맨 유치원 1 9:30 물랑 10:30 한국기행 12:10 광복절 특선 영화 <괴이강의 다리> 15:00 광복절 특집 다큐 <인정의 큰 아문, 이몽선> 15:45 꼬마하이어 슈퍼잭 16:00 예술가 놀자 16:40 워드지 유익박스 19:00 레이디버그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12:00 KBS 뉴스12 12:30 팔도방송 스페셜 12:50 나의 독립 영웅 12:55 사랑의 가족 13:45 꼬마아사리 콩도령 2 14:15 시노스톤 14:45 KBS 뉴스특보 태풍 크로사 14:55 세계는 지금 스페셜 15:05 TV쇼 진품명품(재) 16:05 특집 도전 골든벨(재) 17:00 KBS 뉴스 17:10 동물의 왕국	13:25 광복절 기획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재) 15:15 개그콘서트(재) 16:35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17:55 3.1운동 100주년 기획 운동주 콘서트 별 해는 밤 1부	12:45 MBC 뉴스 12:55 놀면 뭐하니? 스페셜 14:20 같이 편미 미리보기 14:30 광복절 특집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 15:25 광복절 특집 PD수첩(재) 16:20 신인사관 구해령(재) 17:35 같이 편미 미리보기 17:50 실미도는 세상 스페셜	13:50 SBS 12뉴스 14:00 리틀 포레스트 스페셜 15:40 걸걸의 법칙(재) 16:40 의사 요한(재) 17:50 행복설계 일짜배기(재)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저널 집안용임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현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광복절 기획 한국인의 밥상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2:00 광복절 기획 KBS 스페셜 22:55 오늘날 김제동 23:35 슈퍼 23: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9:00 3.1운동 100주년 기획 운동주 콘서트 별 해는 밤 2부 19:50 태양의 제갈 20:30 글로벌24 20:55 제보자들 22:00 자스타스 22:35 자스타스 23:10 해피투게더 1부 24:00 해피투게더 2부	18:25 데미기행 길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신인사관 구해령 21:30 신인사관 구해령 22:05 광복절 특선영화 <형거:유관순 이야기>	19:00 제주를 말한다 20:00 특집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부 21: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부 22:00 닥터 탐정 22:40 닥터 탐정 23:10 점수! 무비월드 1부 23:50 점수! 무비월드 2부	KCTV 7:00 광복절 특집 KCTV 다큐스페셜 8:30 로데오 히트 더 로드 9:30 내 별명은 대통령 10:00 살다공원 아간콘서트 12:00 2019 제주국제관광제 13:30 내 별명은 대통령 14:00 김민아의 무비 N시리즈 17:40 KCTV 시청자세상 18:00 로데오 히트 더 로드 19:00 KCTV 뉴스7 20:00 살다공원 아간콘서트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5일		김종상 지단(魁)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에 관한 소식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집에 초대해도 원만하다. 48년 마음 조절이 때론 필요하다. 가족간 불화나 성격차이로 갈등. 60년 직장이나 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연. 72년 강압이 부드러움에 패하는 격. 부부애정 흠. 84년 친구나 동료의 도움이 크다. 대인관계에 힘을 쏟아라.	42년 외출이나 모임에 참석할 일이 생긴다. 54년 동료나 거래처의 도움은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66년 돈 문제로 불화가 오거나 직장 이동수가 있다. 78년 직장이나 조직생활하는 불만이 많아진다. 내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하라. 90년 휴식이 필요하고 외출 부적절하다.
	37년 여기저기서 돕는 이가 많으니 일을 성사되고 질병은 회복. 49년 명예 또는 갑부 쓸 일이 생기거나 리더자로 인정해주려고 한다. 61년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73년 취업, 직장소식을 접하거나 이성교제 길. 85년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라. 내 뜻이 성사되고 이루어진다.	43년 친구나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좋다. 55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통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67년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겨도 서두르면 더 큰 화가 된다. 79년 취업이나 영업성과가 나타나고, 새로운 이직이나 타탄다. 91년 결단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실천하라.
	38년 모임이 있으면 참석. 다만 술은 주량만큼만. 50년 돈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가정불화 우려. 조율한 추진이 필요. 62년 자식 문제가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교통사고 주의. 7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사랑을 받는다. 86년 의견다툼이 있다. 변명보다는 수용의 자세 필요.	44년 무리수가 오니 확장이나 이전은 보류하라. 56년 아랫사람이나 자식의 문제로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68년 소망하는 일이 되려다 방해자가 생기니 조심. 80년 친구들과 이성 삼각관계 삼가. 무리수를 두지 마라. 시간이 해결. 92년 성과가 작아도 한 만큼 이익이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
	39년 자녀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속 대우지마라. 51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일은 순탄하다. 63년 내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거나 계획하는 일이 발전이 있게 된다. 75년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기쁘나 호사다마 있으니 주의. 87년 부모님의 걱정이 있으나, 긍정사고로 좋은 결과를 만든다.	45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 57년 윗사람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라. 69년 직장이나 하던 일에서 잠시 휴식을 갖자. 81년 돈의 문제가 발생하니 도난 주의, 돈 거래하지 마라. 93년 형제 또는 동료의 도움 협조가 필요하다.
	40년 몸과 마음이 허전하다. 친구나 취미동호회가 필요. 52년 턱을 쌓는 지혜가 필요. 봉사할 일이 생긴다. 64년 생각이 많아 결정하는데 망설인다. 신속한 결정이 인정받는다. 76년 신중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야. 88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안타깝다. 밖으로 활동하면 이익 있다.	46년 충동적인 생각이 일을 망치니 신중한 생각보다는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 58년 음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운전은 자제. 70년 일의 성사 어렵고, 이성교제가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82년 새로운 일을 추구하거나 무언가 갈망하는 하루가 된다. 94년 친구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겠다.
	41년 체면과 명예에 얽매어 실익을 미약하다. 53년 재물운이 있지만 투기는 신중해야 한다. 65년 영입이나 생산에 활력이 생기고 결과가 함께 하니 분주함이 오히려 즐겁다. 77년 선택의 갈등이 있다. 안전사고 조심. 89년 자신감이 있어도 자만함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니 자랑은 자제할 것.	47년 돈이 안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고달프다. 59년 직장문제 지연, 자녀로 인한 고민이 가득. 전문가와 상의. 71년 영입이 다소 호전되나 부지런함이 최고이다. 승진 또는 행운이 있다. 83년 당장 힘들다고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 필요. 95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주변사람과 논쟁한다.